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과 가정복지의 방향성*

An Applying of Wellbeing Perspectives to Household Life and the Practical Orientation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조교수 송혜림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Assistant Prof. : Dr. oec. SONG, Hyerim

〈목 차〉

- I. 서론
 - II. 복지관점에서 접근한 가정생활과 가정복지개념
 - III. 가정복지의 실천과제와 방향성 - 가정철학
- 참고문헌

〈Abstract〉

The human ecology research has focused continuously on household life and its relationships with environments. Today the household life has changed very rapidly. The human ecology takes such challenges which its academic research should focus on not only the household life but also the social environments. And the growing interest on wellbeing society persuade the professionals of human ecology to introduce the wellbeing concepts and perspective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reveal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wellbeing perspectives to household life and the practical orienta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 through the perspectives of wellbeing the human ecology could reinforce its academic status in many related fields.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지원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I. 서론

가정생활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가정학은 현재 우리 사회 가정생활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변화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지금 현재 가정은 어디에 와 있는가?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오늘날 가정은 개인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가정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모름지기 학문이란 그 연구를 통하여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실천적이고도 비판적인 입장에 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가정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어떤 방향의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정학이 늘 자기선언적으로 주장하듯 실천학문이며 응용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날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의 연구대상인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풀어내야 하는 유용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가정학의 연구대상인 가정생활의 의미와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동시에 이를 복지사회에 적절한 틀로 구성, 제시하는 것에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가정복지의 실천적 틀을 체계화시켜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곧 가정 스스로 자율적인 복지활동의 수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가정복지전문가를 배출하고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가정학의 현실적 과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가정학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가정복지와 관련된 연구와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가정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실제적인 기여를 함에 있어서 가정학적 관점의 필수성과 타당성을 내·외부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른 복지관련 학문과 연계함에 있어서 가정학의 고유한 접근방식의 차별성과 효율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

가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구체적으로 가정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며, 가정복지사를 양성·배출함으로써 실천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가정학이 가정복지의 주축 학문이라는 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탐색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가정학자들 간에 그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왜 가정학이 가정복지연구를 해야 하며 할 수 있는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 가정철학을 통하여 이를 지지하고 강화시키고자 하며, 따라서 '왜' 보다는 '어떻게' 가정복지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둠으로써, 가정학적 관점에서의 가정복지연구를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써 가정학이 보편적인 가정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은 일관되게 유지하되, 여기에 복지관점을 접근시킴으로써 보다 학문적 역할과 지향성을 구체화시켜가는 동시에 그 기초에 가정철학을 기초로 세움으로써 독자적인 가정복지의 방향성을 규정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정복지는 실천학문으로서 인간 및 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가정학의 목표를 달성하는 한 구체적 실현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가정학 전공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정복지연구의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 가정학 전공자들이 가정복지 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때 다른 학문영역으로부터의 전문가와 차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가정생활 관련 복지업무는 가정학 전공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셋째, 가정학의 향후 방향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가정복지라는 공통의 줄기를 갖으면서 다양한 대학과 학과가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구체적 대안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자료가 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학 연구에 통일된 줄기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흐름은 첫째, 가정생활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가정복지가 등장한 배경과 가정복지의 전문화 과정을 탐색하며 둘째, 가정생활 중심의 가정복지개

념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가정 복지개념이 가정학에 주는 유용성을 제시한다. 세번째로 이에 기초하여 향후 가정복지와 관련된 가정학의 실천과제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을 가정철학을 중심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II. 복지관점에서 접근한 가정생활과 가정복지개념

1. 개별가정의 부양기능 사회화와 가정복지의 전 문화과정

1) 부양기능 사회화의 특성과 요인

오늘날 산업사회의 전형적 특성으로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분리가 심화되면서 사적인 공간인 가정의 자급능력이 감소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생산과 재생산으로 구성되는 인간의 전반적인 생활이 시간적/공간적 일체감을 가지고 가정생활의 장에서 수행되었으나, 오늘날은 가정생활과 조직(직장)생활, 노동의 장과 휴식의 장, 생산활동의 중심과 재생산활동의 중심이 분리되었으며, 조직체의 규정된 질서로 인하여 사적인 가정생활의 환경이 그만큼 축소되고 가정 외부에 대한 의존도도 강해지고 있다.

이처럼 과거로부터 가정생활의 장에서 수행되던 많은 부양기능들이 현대 산업사회로 오면서 가정 외부의 사회적 시설이나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위임되는 현상을 가정부양기능의 사회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문숙재 외, 1999). 즉 가정 스스로 담당하는 부양기능(가족원을 돌보는 일, 일상적인 먹거리의 조달과 가공, 청소와 세탁, 간병, 가정목공, 재봉, 수리와 수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등의 활동기능)의 많은 부분을 가정 외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 정도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한 요인으로는 우선 가족의 유형과 구조 그리고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핵가족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이혼 증가, 만혼의 증가, 독신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이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부부 및 미혼자녀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은 확대 가족보다 응집력은 강하나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가족 내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점점 더 자녀를 적게 낳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자녀 1인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가족이 보유한 자원의 분량이 많아지면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전문적인 양육과 교육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가정 자체로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기능이다.

노인단독가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부부나 노인 혼자 살아가는 가정은 그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가생활의 관리나 건강관리 등에서 누군가의 지원과 조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과거에는 삼세대 이상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인의 역할과 노인됨의 과정을 함께 경험, 참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럴 수 없다. 노인은 급변하는 사회기술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산업화 및 민주주의, 평등개념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됨의 과정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며 새로운 역할에의 적응,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등도 혼자 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가정생활기능의 변화에 가장 중심이 되는 현상은 여성의 취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성에게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은, 자녀를 적게 출산하고 이혼율이 증가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별히 취업주부의 증가와 관련지어 시설탁아 및 노후시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전업주부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더 이상 혼자서만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취업주부의 경우도 양육과 교육의 대체가 불가피하다. 또한 여성의 취업 증가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등은 그동안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직장, 취미활동, 자아실현

등을 이유로 집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과 그 의미가 증대되면서 노인들의 노후 가정생활도 변화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전문적으로 대체하는 기관, 시설 등이 필요하다. 노인 뿐 아니라, 가정 내에 장애자나 환자가 발생할 때에도, 취업주부의 가족은 적어도 인적인 차원에서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가정 스스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편 오늘날 도시의 생활이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로 크게 이분된다고 본다면, 현대인이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가와 노동의 적절한 조화도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여가를 위하여 정보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탐색과 분석 및 평가능력이 필요하고, 여가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오늘날 중요한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일터와 가정, 노동과 여가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던 전통시대에는 고려될 필요가 없던 일들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제공과 조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의 경우 개별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정관리적 노동공간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혹은 농촌의 생활양식과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 우물가에 모여 세탁하는 주부들의 활동과 그 시간은 단순히 가사노동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다른 한 편에서는 여성들만의 대화의 시간일 수 있으며 혹은 주부들이 그들의 정서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개별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족원들은 다양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과 장소는 주부모임, 상담소, 여성대학, 평생대학 등의 사회적 교육모임이나 친교모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송혜림, 1997:139).

가정의례 부분도 예외는 아니다. 혼인·제례·상례 등의 사회화, 상품화가 꽤 진행되고 있다. 조언을 해줄 집안어른도 없고, 그럴만큼 친밀한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각종 의례적인 가정행사를 가정과 친족관계 내에서 해결해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오늘날 가족의 의식주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나, 점점 위임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원이 일주일에 몇 끼를 함께 먹는가, 세탁과 다림질 및 의복손질이 전체 가사노동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스스로의 요구에 따라 주택을 짓고, 수리하며 관리하는 가정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2) 부양기능사회화과정에서 보다 전문화된 가정복지활동

이와 같이 그 동안 가정이 스스로 수행해 오던 부양기능 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위임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정도 지속될 것인데, 그 결과 중 하나는 필연적으로 가정의 부양기능 수행을 조력하는 전문가 그리고 부양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는 전문적인 시설의 출현과 증가이다. 이는 곧 가정부양기능의 전문화과정이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부양기능의 전문화는 크게 두가지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가족원들을 위한 부양기능을 더 이상 개별가정만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부양업무의 전문가 혹은 전문시설이 복합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이다. 둘째, 개별가정의 부양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는 기능이 개별 가정 스스로 수행할 때보다 더 전문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정생활이 가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양기능의 전문화는 곧 가정복지의 전문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성원에 의한, 구성원을 위한 가정생활 중심의 복지활동이 가정생활 외부의 복지전문가와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되며, 가정구성원은 이를 통하여 보다 향상된 복지수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결과적으로 개별가정은 이제 더 이상 부양기능수행과 복지활동의 주체가 아니라거나 혹은 전문성과 무관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정복지전문가나 전문시설을 통하여 부양기능의 전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정생활의 질 향상과 가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연결/관련되는 다양한 정보, 기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하게 되며, 이로써 가정생활의 운영에 다양한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가정생활 스스로 복지활동의 주체가 되며 전문성을 확보할 가능

성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개별가정 스스로 가족원에 대한 부양기능 전부를 담당하는 분량은 적어졌으나 오늘날 가정은 현대사회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 및 과제를 부여받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 높아진 생활표준과 분화된 욕구 그리고 특별히 가족원의 관계와 자녀교육의 측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그 중요성과 의미가 커진 만큼 가정생활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도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만큼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나 시설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로 가정생활을 통하여 제공되는 부양활동을 오늘날 더 이상 가정 스스로 충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외부에서의 서비스를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가정생활의 부양기능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과제를 부여받고, 다른 의미와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부의 지원은 가정생활의 복지를 향상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가정복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거론해야 할 당위성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정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틀을 마련, 가족원의 복지증진이라는 학문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가정학의 역할도 함께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정복지전문가를 양성·배출하는 과정, 가정복지 전문시설의 운영원리를 제공하고 가정복지서비스를 연구, 개발하는 것과 관련되어 가정생활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함에 따라 가정학도 단순히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보다 훨씬 전문화, 활성화의 토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¹⁾

2. 가정생활 중심의 가정복지개념

이제 가정복지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가정생

활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가정학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가정생활의 본질과 가정학의 대상

생활이란 머물러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혹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생활 안에서 생활의 주체인 인간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생존이 생명의 유지 및 계속의 기능이 영위되는 것이라면, 생활은 주체성을 가지고 생명의 유지 및 계속의 기능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수미 외, 1991:56). 따라서 생활은 능동적이면서도 활동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가정생활이란 생활주체인 인간(집단)이 의식주 등의 생활재를 사용하고 생활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다양한 역할을 배분하며,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생활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모수미 외, 1991:67).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생활의 본질을 인간이 하루하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상적/세대적 재생산활동의 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상적/세대적 재생산활동은 곧 하루하루의 욕구충족을 위한 부양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생활은 일상생활의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v.Schweitzer, 1991).

그런데 이제까지 가정학의 정의, 목표, 대상 등을 탐색하는 다양한 연구들은 예외없이 가정생활을 언급하고 있으며, 중심되는 논지는 가정학이 가정생활을 핵심적인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공인숙 외, 1996:29-30). 최근 가정학이 생활과학으로 명칭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는 가정부양기능의 사회화에 따라 가정생활의 테두리가 생활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학문명칭에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부적, 외부적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기영, 1997:3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은 여전히 가정학이나 생활과학의 핵

1)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한 한국가정관리학회 1999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도, 토론자로 나온 경실련의 김승보 정책실장은 가정학이 가정복지를 연구하는 학문임을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낼 때, 가정학이 어떤 학문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가 대외적으로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가정학의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심적인 연구대상이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가정학 연구가 진행되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의 장으로서 가정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가정학이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자기규정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 모두 익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가정생활이라는 대상이 과연 학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고 연구할 만큼 전문성 있는 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을 영위하며 가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생활은 더 이상 신기할 것도, 새로운 것도 그리고 특별한 것도 아닌 매일 되풀이 되는 삶, 즉 일상적인 세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생활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가정학은 자주 그 전문성과 학제성을 의심받아 온 면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가정생활이라고 하면 비전문적으로 인식되며 학문의 대상이 되기 힘든 속성이 부각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생활의 부양기능을 강조하면서 가정복지라는 보다 구체적, 실천적인 개념으로 다시 풀어내는 시도, 즉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가정복지전문가의 양성·배출, 가정복지전문시설 운영원리의 연구와 적용, 가정복지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가정학의 전문성과 실천성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현실 속에서 가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 적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동물과는 달리 생리적 조산아로 태어난 인간은 성장하여 스스로를 부양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긴 시간동안 누군가가 인간의 양육과 교육을 수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충

분한 환경을 경험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기부양시기까지 가장 최초의, 기본적으로고도 필수적인 부양활동을 최후까지 제공하는 생활의 핵심적 장이 가정생활이다²⁾. 이와 같은 가정생활의 부양기능 그리고 인간의 복지감에 가정생활이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복지증진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이다.

어떠한 맥락에서 가정생활이 변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찰은 가정생활이 가정학의 핵심적인 연구대상이라는 맥락에서, 가정학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 그 내용과 체계, 틀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즉 가정생활이 위임되는 사회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러한 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 향상 및 가족원의 복지증진이라는 가정학의 목표를 다양한 범주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는 것이다.

2)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정복지개념과 그 유용성

가정학은 가정생활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제 가정복지를 통하여 가정생활에 보다 전문성, 실천성을 더함으로써 가정학의 연구과제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통하여, 가정복지의 기본개념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정복지개념은 가정구성원들이 가정생활의 장을 통하여 개별적·공동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로써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된다는 측면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속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치료하는 복지기능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예방과, 보장,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기능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한 가정복지는 문제가정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예방적, 조정적, 치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2) 독일의 가정학자 v.Schweitzer교수는 이처럼 인간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가정경영활동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가정경영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이라 지칭한다.

이다 (유영주, 1995).

요약컨데 가정복지는 가정생활의 부양기능이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으로써, 가정생활 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이며, 이로써 가정생활에서의 일상적 삶이 건강하고 주체적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될 것이다. 즉 전문화된 가정복지기능을 통하여 가정생활은 궁극적으로 인간생활에 요구되는 바 복지활동의 주체가 될 것이며, 가족의 자율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우리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양식의 가능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삶의 범주를 더욱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송혜림, 1999).

이처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가정복지를 규정하게 되면, 가정학적 관점의 가정복지개념이 보다 명확해진다. 왜냐하면 가족의 개별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가족복지개념과 차별성을 갖게 되며, 더욱이 다양한 가정생활의 국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정학을 구성하는 학문분야들이 가정복지라는 공통된 줄기를 갖고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복지관련학문분야와 구별되는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가정학적 가정복지의 필수성과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가족복지와의 차별성을 살펴보자. 기존의 가족복지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관점은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가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사회에서 가족에게 기대하는 기능간의 괴리를 메워 주고 가족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사회변화를 수용 혹은 주도해 가면서 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해 주도록 지원하는 것을 가족복지라고 규정한다 (조홍식 외, 1998:2;38;42). 즉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의 가족생활을 보호, 보장, 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서비스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가족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가족복지의 개념적으로는 가족 전체를 강조하면서도 실제적인 서비스의 내용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제시되

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개별 대상의 복지분야인 아동이나 노인 등의 체계와 구별되는 고유의 가족복지 실체가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가족복지는 기존의 아동·노인·여성·청소년 등 개별대상과 관련된 복지영역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내용일 경우가 많으며 다른 복지영역에 비하여 구체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아닌 가족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접근과 구별되지 않는 점이 우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연구(노영주 외, 1999)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기존의 가족복지 개념이 자주 개별가족원 중심의 복지로 환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가정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정복지개념은 기존의 가족복지와 구별되는 개념이며 가족원이 아닌 가정생활 그리고 그 다면성을 강조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유용성을 갖게 된다.

첫째, 가정복지는 혈연가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혈연가족이 수행했던 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는 생활단위를 포함시킴으로써 가족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 우리 생활의 지평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개별가정의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가족복지라는 명칭하에 비혈연가족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김연명, 1999) 인정한다 하여도, 실제로 이러한 비혈연가족을 포함한다면 혈연이라는 관계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가족복지라는 명칭보다 포괄적인 가정복지 개념이 더욱 적절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 아닌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이 접근의 중심이 됨으로써 가정생활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보다 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음의 두 번째 특성과 연결되며, 가정학에 대하여 보다 결정적인 유용성을 제시한다.

둘째, 가정생활이라는 하나의 전체체계를 복지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가족원의 관계, 자녀양육 및 교육,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자원관리와 소비자 등 인적체계와 물적 체계의 상호관계를 다루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타학문분야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연구범주로서, 가정복지연구에 가정학이 주체가 된다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가족복지가 사회복지의 하위영역 혹은 가정학 중에서도 가족(관계)학 분야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로 인식되는 데 비하여, 가정복지는 가정학 전체가 공유하는 총합적 단위로서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³⁾.

그리고 이러한 점은 가정복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복지학문 분야와의 관계에서 가정학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는 효율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⁴⁾. 이는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분야가 각기 학문적 입장과 독자성의 토대에서 다양하게 사회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복지증진이라는 가정학의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보다 유용성이 크다.

셋째, 기존의 가족복지가 가족이라는 하나의 전체 체계에 접근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동복지·청소년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 등 개인 중심의 복지적 접근에 치우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지 가족원 뿐 아니라 생활의 주체로서 인간, 다양한 측면의 복합체인 가정생활 그리고 생활하는 과정 등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이에 적절한 단어가 가정복지이다. 가정복지는 가족원이 아닌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송혜림, 1999 재인용, 수정).

동시에 사회복지 내의 가족복지가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강조점은 가족의 곤란이나 결함을 원조하는 데 있다면 가정복지는 가정생활의 문제해결 뿐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정의 기능강화에 초점을 둬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 스스로 가정생활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지지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성희 외, 1999), 앞에서 설명한 주체적인 가정생활의 복지기능을 강조할 수 있는 개념도 가족복지가 아닌 가정복지라고 할 수 있다.

Ⅲ. 가정복지의 실천과제와 방향성 - 가정철학

이상에서 가정학은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복지사회에서 그 학문적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대외적 위상 역시 강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정복지개념을 통하여 가정학의 제전공이 공통의 학문적 방향성을 갖고 연대할 수 있는 실천의 틀을 강화하기에 적합한 토대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가정복지개념이 어떻게 실제적 구도로 나타나도록 할 것인가 즉 가정복지의 실천과제가 남겨진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그 방향성을 정리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이라는 학문적 목표는 비단 가정학만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다른 복지관련 학문분야와 연합하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되, 가정학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에서의 동질성이 곧장 연구방법과 연구의 관점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정학이 왜 꼭 가정복지를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의 자기확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적인 인정을 얻는 데에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다른 복지관련학문이 이뤄놓

3) 이처럼 가족학 혹은 가정관리학 중심의 가정복지개념이 아니라 가정학 전체를 통합하는 가정복지개념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근에 가정복지사 인증 주체를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 대한가정학회로 이전시킨 것은 의식주생활과 가족관계, 가정경영 등을 다 총합하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복지개념을 부각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가정학의 다양한 전공내용 중에서도 가족상담이나 치료, 보육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시적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학적 관점과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가정의 생활주기, 다양한 단계별 인간집단의 욕구 등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가정생활설계, 부모교육, 소비자재무설계, 소비자상담, 주택상담, 공동주택의 관리, 공공가정의 운영, 단체급식과 영양상담, 의복의 선택과 세탁물상담 등은 가정학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정복지서비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은 성과와 학문적 과업들을 고려할 때, 가정학에서 가정복지를 강화시키는 학문적 지향성이 어찌면 비효율성의 반복이며 타학문의 범주를 침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연구자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 주목할 때,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이라는 대명제와 목표 앞에서 관련되는 제학문분야가 공통의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양적, 질적으로 보다 높은 복지수준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정학은 가정복지에 대한 가정학적 접근의 효율성과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사한 대상을 다루는 인접학문과의 관계에서 대상과 방법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가정학의 전 분야를 관통하는 기본이념이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개발의 지향, 가족복지로의 피드백, 욕구충족원칙의 우선적 고수, 생활표준의 설정, 가정규범의 준수, 생활문화의 창조 등이 기저에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이기영, 1997:4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기본이념을 가정철학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가정철학은 전반적인 가정생활과정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근거한 행동준거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철학은 일반적인 복지라는 개념 하에 다양한 인접학문들이 연계할 때, 가정학의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관점과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복지의 주축학문은 가정학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고히 하며, 대내적으로는 가정학의 전공을 통합할 수 있는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철학은 가정학에 대하여 대외적, 대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철학을 추구하는 이유는 가정학이 가정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그 학문적 목표로 해 왔으며, 이는 초기 가정학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가정학의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정생활에서 지향할 일정한 표준이나 가정윤리 등을 제시하는 데 소홀하였다는 점에 (공인숙 외, 1996)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이러한 소홀함은 가정학

이 본질적으로 가정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 전반의 복지서비스 체제 하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한 요인이 된다 (송혜림, 1999:34).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가정철학은 특별히 가정학이 응용학문이며 실천학문이라는 학문적 속성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응용학문과 실천학문으로서의 가정학은 그 축적된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생활에의 적용을 통하여 학문적 기여를 완성할 수 있는데, 이 때 실제 생활세계에 전달해 주는 행동규범으로서의 가치판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이를 가정생활의 욕구충족기능과 관련지어 본다면,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준거가 되는 척도, 표준 등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송혜림, 1999:38-39). 따라서 가정학에서 제시하는 가정철학은 가정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생활표준으로 구체화되는데, 이를 개발하고 학문적으로 검증하여 적용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v.Schweitzer, 1991). 이러한 실천적 생활표준은 결과적으로 가정복지의 기반이 되며 그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천적 생활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다양한 가정생활의 국면 속에서 구성원들에게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학은 가정철학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올바른가 혹은 올바르지 않은가의 차원보다는 다양한 기회 그리고 그 기회가 가져다 줄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하여 앞으로의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필요로 하는가를 가정학적 관점에서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사회를 이끌어 온 가치관은 경제적 합리성이며, 따라서 경제적 인간형(homo oeconomicus)이 주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인간형은 REMM(resourceful, evaluating, maximizing man)으로 재개념화되어, 자연을 정복하며 물질주의적 성향을 갖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동원, 개발, 사용하여 최

대한의 효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무한한 진보와 성장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결과 도시화, 산업문명의 활성화, 물질적 풍요로움의 확대, 기타 자원소모, 교통·통신시설의 확충, 인간조건 개선,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가져왔다 (Weber, 1972).

그러나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달성한 이제부터의 인간사회는 또다른 인간형과 새로운 가치관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경제적 의미에서의 생산이나 GNP 등과 같이 객관적 성장에 대한 추구가 아니다. 합리성의 기준이 변화될 것이며 차원이 새로워질 것이다. 파괴와 오염의 문화가 아닌 살림의 의미, 보호와 지키기의 의미, 돌보기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적 가치를 창조하며 인적 자원을 재생산하는 가정생활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복지생산의 주체로 보고 물질적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의 복지적 접근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생활표준이 필요한데 (v.Schweitzer, 1999:1) 이것이 곧 가정학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제시하여야 하는 가정복지연구의 틀이 될 것이다. 환경과 자연의 보호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결국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수세대에 걸친 생활환경을 돌보고 보존한다는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는 자연의 정복자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인간형이 더 이상 주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초기 가정학 저서들은 자원은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를 갖으며, 운영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의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공동문화의 창조가 복지증진과 맞닿아 있음을 나타내며 (v.Schweitzer, 1999:1) 이는 곧 가정복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 가족이기주의의 극복, 새로운 문화운동의 주체,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위한 공동체의식, 새로운 교육문화의 창조, 사회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균형, 민주적인 가족관계, 재생산활동의 재평가, 공동문화의 창조,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성 등이 가정철학을 풀어 나가는 핵심내용

이 될 것이다.

가정복지사, 그들이 제공하는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의 중심이 되는 (가칭) 가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은 이러한 지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정생활의 자율적 주체로서 어떻게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다양한 가능성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철학적 관점으로 지지하며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가정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봄과 보호의 가치 그리고 더불어 삶의 의미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가정학이 제시할 수 있는 가정철학은 이렇게 가정복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시화될 수 있다. 실제 가정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서비스의 개발, 프로그램의 보급, 가정복지전문가의 양성 및 배출 등 가정학의 실천적 가정복지과제는 이러한 가정철학의 토대 하에 이루어져야, 효율성과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경제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성찰과 관대함, 사회적 책임감, 겸손함에 대한 새로운 사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책임감이 인간성의 중요한 한 평가기준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표준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철학적 사고가 가정생활 속에 녹아드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v.Schweitzer, 1999a: 12-13 재인용, 수정).

향후 가정복지와 관련된 연구는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여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전달의 주체가 되는 가정복지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배출할 것인가, 이를 위한 교과과정을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복지의 현상으로서 (가칭) 가정복지센터를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등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인숙·노영주·성미애·송혜림·이승미·이완정·최연실(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 제 49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가정학회.
- 김연명(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에 대한 토론.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183-186.
- 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73-184.
- 모수미 외(1991). 가정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문숙재·송혜림·김선희·이기영·김난도·김순미·박미석·조희금(1999). 공공가정경영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송혜림(1997). 수행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공가정의 개념과 경영원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35-148.
-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1-45.
- 유영주(1995). 가정학과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 48차 춘계학술대회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1-2.
- 이기영(1997). 인간과 생활환경에 관한 가정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인간과 환경'. 대한가정학회 : 29-50.
- 이성희·이승미(1999).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효용성 연구 : 전주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1-18.
- 조홍식 외(1998). 가족복지학. 학지사.
- v.Schweitzer(1999a).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가정대학 생활환경학과 주최 여성정책전문가 초청강연 자료집.
- v.Schweitzer(1988). *Lehren vom Privathaushalt - Eine kleine Ideengeschichte*. Campus Verlag.
- v.Schweitzer(1991).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Ulmer Verlag.
- v.Schweitzer(1999). *Ethische Aspekte wirtschaftlichen Handelns in privaten Haushalten* (미간행원고).
- Weber Max (1972). *Wirtschaft und Gesellschaft*. 5. Auflage. Tübingen.